

濟州 佛塔寺 五層石塔을 찾아서

金 禧 庚

- 소 재 지 : 제주시 삼양2동 원당사
- 높 이 : 3.45m
- 재 료 : 현무암
- 시 대 : 고려
- 지정번호 : 보물 제 1187호

제주도에 까맣고 거칠면서 구멍이 송송난 현무암제의 물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塔婆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지난 여름에 가족과 같이 제주를 찾을 기회가 있었다. 출발에 앞서 안내서를 뒤적거리다가 한 귀퉁이의 작은 탑 사진이 눈에 띄었다. 나는 이 탑을 꼭 확인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拙編 韓國塔婆目錄(考古美術資料第四輯 1963年刊)을 펴낼 때 만해도 기록에 없어서 신지 못하였다가 增補版을 낼 때야(1994년) 겨우 수록하였다.(증보편 p.16 제주도)

7월16일(2000년) 아침 먼저 秋史 遺跡地(秋史館)을 찾아 歲寒圖를 그렸다는 거처한 방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였다. 秋史의 체취를 뒤로 하고는 바닷물에 잠시 몸을 잠겼다. 塔 소재지를 물어 동해안을 달려 제주시 쪽으로 향했다. 그 날이 마침 일요일이라, 동 사무소 등의 공공기관이 문을 닫아 길 묻기가 힘들었다. 석양이 질 무렵에야 겨우 삼양동을 찾아 교통정리하는 해병출신 노병의 가르침으로 주택가를 지나 산록의 아파트 옆 비포장 등산로를 올라 佛塔寺에 이르렀다. 塔이 있는 곳을 작업중인 女信徒에게 물으니 이 절에는 없고 아래쪽 '원당사'에는 있다고 하여 올라온 길을 도로 내려가 '원당사'라는 작은 안내판을 따라가니 절이 나왔다. 스님을 찾았는데 住持스님은 비구니였다. 용무를 말하니 친절히 안내해 주었다. 그러나 해는 이미 지고 산중이라 어두워서 겨우 탑의 존재를 알아볼 수는 있었으나, 관찰은 곤란하여 내일 아침 다시 오겠노라고 하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 중문의 숙소에 도착하였을 때는 11시가 지나 음식점이라고는 모두 문을 닫았다. 마을에 내려가 구멍 가게를 뒤져 라면 몇 봉지를 구하여 끓여서 겨우 요기를 하였으니, 가족들에게 할말이 없었다. 다음날 다시 찾았을 때는 매

우 더웠다. 유치원 아이들이 일대를 차지하고 야외학습을 하고 있어서 겨우 탑에 접근할 수가 있었다. 탑에 손을 대니 어찌나 뜨거운지 손이 데어지는 것 같았다.

- 탑의 관찰 : 塔身 및 屋蓋가 각각 한 돌로 되었고 基壇은 단층이고 隅柱는 표현되지 않았다. 第一塔身 前面에 작은 龕室이 하나 마련되었다. 기단 면석을 만져보니 도돌 새김으로 된 둥근 문양이 있는 것을 느끼나 (절에서는 蓮花같다고 하지만) 돌이 워낙 까맣고 구멍이 많아 육안으로 잘 알아볼 수 없었다. 상륜부는 후에 보완된 것이다. 주지 스님은 절이 세 번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고 탑에는 원의 왕실과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해 주신다.

揭示板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있어 옮겨본다.

佛塔寺 五層石塔 寶物 第1187號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삼양동

이 탑은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형성한 일반형 석탑이다. 상륜부는 뒤에 보강한 것이다. 탑신부 각층 비례와 각부의 양식은 고려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석탑은 고려 충렬왕 26년(1300)에 원나라 황제가 왕자를 얻기 위하여 건조했다는 전설이 있다. 불탑사는 세 번의 화재로 燒失되었으나 이 석탑만은 거의 원형대로 남아있다.

웬일인지 탑 이름을 불탑사 5층석탑이라고 하지만 비록 사찰 건물은 화재로 누락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석탑만은 원위치를 지키고 있다. 귀경하여 文化財廳에 문의하였더니 '불탑사 오층석탑'으로 지정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당사 오층석탑'으로 불리는 것이 옳을 것 같다.

· 가는길 : 제주시에서 동쪽 순환도를 따라 10km쯤 차로 달리면 삼양동 사거리가 나온다. 좌측에 그다지 높지 않은 산(원당봉, 봉우리 2개를 보이며 이 근처에 산이라곤 이밖에는 없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택가를 지나면 산밑에 아파트가 보인다. 그곳에서 비포장인 등산로를 10분 가량 차로 올라가면 산 중턱에 '원당사'라는 작은 안내판이 보이니 그 곳을 가면 곧 절이 나온다.(직진하면 佛塔寺가 나옴)

짧은 2박 3일 일정의 쉼이나 되는 시간을 들여 탑의 소재를 고생하여 어렵게 확인하였으므로 자세한 조사는 시간이 없어서 후에 기약할 수 밖에 없고 다만 이번에는 이 진기한 탑의 존재를 알리는데 그쳐야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家長의 일방적인 처사로 모처럼의 관광을 제대로 못한 가족들과 함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